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고전 3:3).

:

자연인은 육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시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항합니다. 바로 성령을 대항하는 이 세력이 육신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6.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육신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사나우며 사소한 일들에 쉽게 분노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증상을 그들 속의 육신과 연결시킵니다. 성경 안에 당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진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당신이 지금 육에 속한 상태임을 증거합니다. 만일 성화하는 과정에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시면 당신에게 그 잘못을 시정하라고 부탁하는 대신 빛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때 빛의 자녀들은 당장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들은 변명합니다. “오, 저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빛이 들어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면 빛의 자녀답게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자신을 변론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어둠의 자녀임을 시인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육신이 떠났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결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육신이 떠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실제로 현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당신의 육신이 떠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실질적인 확인이 곧 육신이 제거된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일이 전에 발생했다면 분명 내 안에 짜증과 분노가 있었을 텐데…” 당신은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고전 3:3)

1. 육에 속한 증거

우리의 신앙에서 꼭 점검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무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육에 속함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시기하고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챔버스는 이렇게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 당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진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당신이 지금 육에 속한 상태임을 증거합니다. 만일 성화하는 과정에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3월 4일 묵상에서도 ‘유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를 묻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적용되고 있음이 감사함으로 고백된다면 우리는 분명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음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할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릭 위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34일 차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둔다는 것이다. 그들은 조건 없이 사랑 받고, 은혜로 용납 받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확실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비하하는 일도 기꺼이 용납한다.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걱정한다. 그들은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만과 가식 아래 숨는다. 우리가 불안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겨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게 된다.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관심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그들의 잣대로 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을 동정할 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을 드러내 떠벌일 필요가 없다.”

2 영에 속한 증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증거를 알았다면, 이제 영에 속한 증거가 무엇인지도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늘 변명하지만, 영에 속한 자가 되면

당장 죄를 자백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빛에서는 자는 죄에 대하여 가장 민감해지며, 찬란한 빛 앞에서 우리의 변명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죄를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들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론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어둠의 자녀임을 시인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주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실질적인 확인(practical test)이 곧 육신이 제거된 유일한 증거(only proof)입니다. ‘이 일이 전에 발생했다면 분명 내 안에 짜증과 분노가 있었을 텐데!’ 당신은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증거!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내면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에 분노가 생기지 않을까?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모습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흥내를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통달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통달’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어떤 것을 막힘이 없이 환히 다 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search’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구석구석 다 검색해서 알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엠파스나 네이버와 같은 search engine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와 같은 인터넷을 살살이 이 잡듯이 뒤져서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통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search engine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 회피하지 말고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때 우리는 ‘아픔’을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의 빛이 육신에 속하여 있을 때는 아픔이지만, 영에 속한 삶을 살 때는 기쁨이 됩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① 말씀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거나 삶에 걸림돌이 된다면 아직 육에 속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② 강력한 성령의 빛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이며, 아직도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묵상 질문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기 위해 우리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 혹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묵상레시피 ■ 사도행전 2:14-42+ 고린도전서 3:3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예언과 언약의 말씀들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영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7-21절)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내용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22-36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7절)

베드로가 말씀들은 자들에게 요청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38-40절)

세례를 통해 예수께 정체성을 두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42절)

베드로가(14절)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실수가 많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으나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깨닫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16절)

하나님의 영은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부어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의 사람에 속하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며, 성령의 인도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

가르침, 교제, 떡, 기도(42절)

예수의 가르침 전부와(마28:20)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리킨다. 성도들의 교제(코이노니아)는 영적, 정신적, 물질적 교제(구제)를 포함했다. 떡을 떼는 일은 애찬, 성찬 둘 다로 볼 수 있다.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공동체의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 떼는 애찬이 있었다. 예배와 신앙 공동체라는 점에서 '떡을 떼며'는 '성찬'으로도 볼 수 있다. 기도는 영에 속한 이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이셨다.